

꼰대테스트



나는 절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
나도 모르게 꼰대가 되었을 수도 있다!
간단한 질문들로 나의 꼰대력을 파악해보자.

테스트 시작하기





문제테스트

4 / 12

1.
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말을 놓는것이
서로 편하고 좋다.

-2

-1

+1

+2

2.
연애사와 같은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
조언해 줄 수 있다.

-2

-1

+1

+2

3.
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은 공감하지만,
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.

-2

-1

+1

+2

4.
약속 등의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는 것이
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.

-2

-1

+1

+2



꼰대테스트

8 / 12

5.

요즘 애들은 노력도 없이 세상 탕,
불평 불만만 많은 것은 사실이다.

-2

-1

+1

+2

6.

뭐만 하면 '꼰대' 거리는 MZ세대에게도 문제는 많다.

-2

-1

+1

+2

7.

후배의 옷차림, 인사 예절등도 회사 생활에 포함되므로
지적해 주는게 좋다.

-2

-1

+1

+2

8.

'○○란 ○○○인거야.' 라는 식의
진리 명제를 자주 사용한다.

-2

-1

+1

+2



꼰대테스트

12 / 12

9.

나보다 열심히,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
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.

-2

-1

+1

+2

10.

아무리 휴가중이어도 회사에서 걸려오는 연락은
급한 일일 수 있으니 받아야 한다.

-2

-1

+1

+2

11.

내가 보낸 '수고해~'라는 메시지를 읽씹한 후배가
버릇 없게 느껴진다.

-2

-1

+1

+2

12.

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후배가 신경쓰인다.

-2

-1

+1

+2

당신의 꼰대력은

김응수도 웃고갈 극악무도 꼰대



- 당신은 꼰대중의 꼰대, 상꼰대입니다.
- 당신은 당신이 꼰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듭니다.
- 후배(또는 부하)가 당신을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종종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.
- 왜 나만큼 열정있는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속상합니다.
- ‘요즘 애들은...’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
- 우리나라의 미래를 자주 걱정합니다.

